

### ●●● 건강아카데미



인간수명의 연장에 발맞추어 급증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어느 일정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한다. 또한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그로 인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강좌와 일반강좌, 교양강좌의 3과목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취미활동과 행사교육을 통해 수업의 총체적인 틀을 다진다. 주 1회, 2시간 30분의 수업을 하여 1년 단위의 대학과 대학원 과정이 있다. 또한 평생 활동할 수 있는 무취과정도 편성되어 있어 공부에서 벗어나 음악을 즐기거나, 야외로 경치구경을 떠나기도 한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배움에 대한 의지와 정열이 시들어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배움을 많이 깨닫지 못했던 소망을 시원하게 즐기기도 하시는 듯, 최선을 다해 수업과 다양한 취미활동에 임하고 계신다. 3월과 9월에 대학기 수업을 시작하여 모집인원을 120명으로 정해두고 있다.

■ 교육문의: 053 89-2007

### ●●● 노인상담아카데미



노인상담아카데미에서는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특성 중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우울 문제와 더불어 불안, 가족관계, 가정폭력, 건강문제 등을 친절히 상담해 주고 있으며, 노인전문상담원 기초교육으로 노인전문상담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화상담의 경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어 비밀이 보장된다. 이용방법은 080-308-9088로 하면 된다. 면담상담은 어르신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여러 문제를 전문 상담원과 개별상담,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전화질수 후 면담상담을 통해 종결된다. 이용대상은 어르신 또는 어르신을 보시는 부양자 및 어르신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교육문의: 053 816-4210

#### ☞ 4기 노인전문상담원 기초교육생 모습

- ▷ 모집기간: 2007. 2월 25일(수) ~ 2월 28일(수)
- ▷ 교육장소: 대구노인전문상담원 문화 공간
- ▷ 교육과정: 이론교육(48시간), 노인상담 실습(2시간)
- ▷ 교육기간: 2007. 3월 25일(수) ~ 5월 9일(수)
- ▷ 교육자격: 상담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선착순 70명
- ▷ 교육문의: 053 816-4210, 89-2045

### 노인복지센터 ●●●



본 센터에서는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실 주간보호센터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한국지매가족협회 대구지부를 통해 수성구 내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성구내 기존의 주간보호센터와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서비스 지역 및 센터인원의 한계성 극복과 동시에 병원 병실의 특성을 살려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문제였던 의료서비스의 부재를 병원의 프로그램 및 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건-복지의 통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병원 병실 노인복지센터이다.

■ 문의: 053 89-2060

### 치매가족협회 대구지부 ●●●



치매가족협회 대구지부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의 일부라고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치매전문상담진단센터(053-810-2060)운영을 통해 가정간호방역 및 노인복지사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치매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배회로 인한 실종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빠른 시간 내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회구조 팔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치매가족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심자살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자 세계치매의 날(9월 10일)을 기념하여 전문가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상담안내: 053 819-2060

### 모레아 예식장 ●●●



인간에게 있어 죽음만큼 극한의 공포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할지려하는 비릇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늙는다는 것,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그런 막연한 공포를 날려다오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장례 예식장의 역할이다. 모레아는 남태평양의 저상 나뭇잎과 같은 섬으로 고인을 아름다운 곳으로 보시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호텔이나 미술관을 연상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외경에, 내부 시설들은 유가족들의 상심을 달래줄 수 있는 최선으로 꾸며져 있다. 이곳에서는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상례 상담사를 두고 있다. 엄선된 장의예복을 진열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모습으로 신발을 연고자 한다.

■ 문의: 053 801-9999